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추석 맞아 요양원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김철희 기자 | 승인 2026.09.21 15:50

전달식.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제공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구미·김천지사는 21일 구미시 선산읍 성심요양원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입소자들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창식 지사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 한국 김철희 기자 chk1500@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